팀 소개서

팀 명 : Hope Charge

팀 명을 위와 같이 짓게 된 이유는 “워 썬더” 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를 듣고 영감을 얻게 되어서 위와 같은 팀 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.

작년 2015년 한창 다른 게임 기획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을 당시 대표자(김공무 학생)이였던 저는 한창 스팀에서 서비스중인 “워 썬더” 라는 탱크 게임을 자주 즐기곤 했습니다. 여름 이였던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팀원과 같이 게임 제작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워 썬더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.

한창 게임을 하는 도중 게임 속 승무원이 탱크의 탄 종류를 바꿀 때 마다 대사를 외치게 되는데 마치 들리는 영어 문장이 지금의 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서 매우 인상깊었던 기억이 났었으며 그 후 지금의 공모전을 시작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 팀 명을 결정하는데 그 기억이 영감을 주게 되어 “희망을 충전하자” 라는 뜻의 “Hope Charge”의 팀 명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.

**팀원이 맡은 역할**

현재 3명의 팀원이 맡은 역할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한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김공무(대표자) | : | 게임 기획, 게임 디자인, 서브 프로그래머, 테스터 |
| 성영훈(팀원) | : | 메인 프로그래머, 게임 디자인 보조, 기획 보조, 음향 |
| 이종원(팀원) | : | 게임 디자인 보조, 기획 보조, 테스터, 음향 |

위 표에 적힌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는 대표자인 김공무 학생은 주로 게임 기획과 디자인 담당을 맡게 되었으며 팀원인 성영훈 학생은 프로그래머 및 음향 담당을 맡게 되었고 마지막 팀원인 이종원 학생은 게임 실행 테스터 및 음향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.

저희 팀원은 각자 맡은 담당 뿐 만 아니라 김공무 학생은 서브 프로그래머 및 게임 실행 테스터 부분도 같이 진행하였고 성영훈 학생은 기획 및 디자인 보조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이종원 학생도 기획 및 디자인 보조와 음향 부분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각자 맡은 담당을 마친 후에도 서로의 담당 부분을 도와주면서 게임 기획 및 제작 진행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.